

ONE PICK!
전공 적합서

〈도대체 전공이 뭐길래!〉

자유전공학과
Check!

- ✓ 입학 후 전공 탐색, 2학년 전후 전공 선택
- ✓ 대학에 따라 선택 범위 달라
- ✓ 학문 경계 넘나드는 유연성·자기 주도성 중요

전공 적합서 저문 교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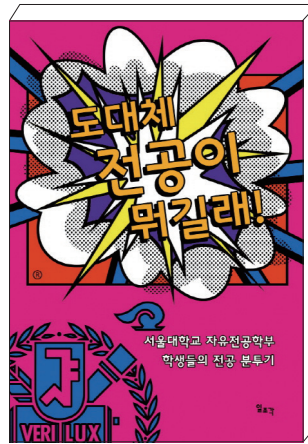
김용진 교사(경기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백제현 사서 교사(서울 혜성여자고등학교)

우보영 교사(서울 원목고등학교)

장성민 교사(서울 선덕고등학교)



지은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퍼넌곳 일조각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입학 후 1년 동안 여러 과목의 수업을 들어보며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한 경험을 담은 책입니다. 전공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 방법과 겪었던 시행착오도 함께 소개하고 있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개설된 전공설계2 과목의 기말 과제로 제출한 전공 분투기 가운데 일부를 모았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진학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비슷할 것 같지 않나요? 책을 읽으며 선배들의 방법을 따라 해보거나, 혹은 내가 지금 전공을 탐색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시행착오나 전환점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_저문 교사단

자유로운 선택의 이면
직면하는 책 읽기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쌤과 함께!
깊이 읽는 전공 적합서

자유전공학과

#독서

#진로

#전공_적합서

#자유전공학과

BOOKS&DREAM

각양각색 전공 분투기 속 자유에 뒤따른 고민 따라잡기

‘자전은 두름길이다. 지름길보다 많은 가능성을 가진 우회로다.’

‘자전은 양지바른 곳에 내가 판 아름다운 무덤이다.’

‘자전은 열려 있는 감옥이다. 탈출도 수감도 내 손에 달려 있다.’

솔직하고 재치 있는 문구들로 시작하는 이 책은 2009년 이래 8년에 걸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전공설계 2’ 과목의 기말 과제로 제출한 약 500편의 ‘전공 분투기’ 중 일부를 담았다. 자유전공학부는 대학 입학 후 1년간 탐색기를 거쳐 전공을 정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학생은 드물다. 주변의 평가와 스스로 느끼는 불안이 ‘자유고민학부’ 생활로 이끈다는 전언.

책은 강좌를 중심으로 자신,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펼쳐낸다. 대학 입학 후 아무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현실에 충격을 받은 이부터, 대세를 따른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이, ‘의대’를 바라는 부모님에게 ‘미대 가겠다’고 통보한 이, 대학에 없는 ‘법의학’ ‘놀이문화학’ 등을 전공하려 스스로 설계 전공을 짠 이들까지,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은 무대만 대학으로 바뀌었을 뿐 고교생들의 상황과 다를 바 없어 공감의 끈이 간다. 고민과 설득의 과정은 본보기로 삼기에 충분하다. 전공 선택을 향한 분투 끝 각종 자격증 시험·고시, 혹은 대기업 취업까지 사회 진출 과정과 준비 방법도 안내해 대학 이후 인생 로드맵을 설계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를 지망하는 학생은 물론, 자신을 잘 모르겠거나 꿈이 없어 고민인 학생, 염두에 둔 진로·전공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는 학생,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주변의 기대가 달라 힘든 학생 등 미래를 고민하는 누구나 읽어볼 만한 책이다.

“전공 선택은 전공 분투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오랜 꿈이었던 법의학자를 떠나보내고 범죄학을 전공하던 중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전공의 완성성을 위한 수많은 갈림길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도대체 전공이 뭐래!> 15쪽

자문 교사단의 ‘추천 도서

제목	지은이	출판사	추천 평
인간, 너머의 인간	이경민 외 7명	시월의책	자유전공은 여러 학과를 자유롭게 경험한 후 자신의 전공을 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선호한다. 이 책은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관계를 따져 묻는 데에서 시작해 포스트 휴먼 기술, 동물권과 생명, 휴머니즘의 명암, 지구법학 등 다양한 탐구 주제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한다.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또 해당 분야에서 나름의 깊이를 더해 융합적 사고를 해야 하는 자유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책이다.
새로운 미래 뭘하고 살까?	김승 외 3명	미디어숲	‘미래에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하고 싶은 게 없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뿐 아니라 ‘지금 꿈꾸는 진로가 미래에도 유효할까?’에 대한 불안까지 명쾌하게 해소해주는 책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는 긍정적 시각을 제공한다. 실제 진로 상담 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누구나 자신에게 적용해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책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을 주목하며 읽어보길 권한다. 자신의 꿈을 접거나 바꾸지 않고 창의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눈여겨보고, 친구와 짝지어 상담자와 내담자가 되어 책 속 대화를 따라 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다.



임태경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2학년

“다양한 분야 향한 지적 호기심, 교과 연계 독서 탐구로 드러냈어요”

Q. 자유전공학부 진학을 결심한 계기는?

진로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인문·자연 중 어느 계열에 내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었고, 1년에 꿈이 다섯 번씩 바뀌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자유전공학부를 찾았어요. 운영 대학이 많지만, 학교별 특성이 제각각이더군요. 특히 고려대는 법학도가 전신이라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을 이중전공해요. 공적 리더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법·행정·경제 관련 수업을 꽤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어요. 후배들은 이런 대학별 특성을 알고 오면 좋겠어요. 참, 전공별 이수 인원에 제약이 있는 경우 학점이 중요해요. 친구들보다 좀 더 바쁜 신입생 생활을 보내야 한다는 것도 각오하면 좋겠고요. 하하.

Q. 대입 준비 과정에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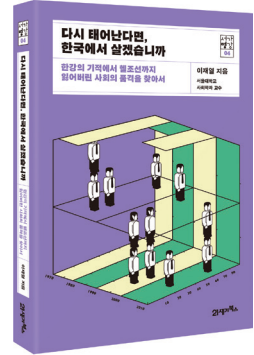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기에, 폭넓게 읽었어요. 또 학교생활에 충실했고요. 그런데 모습이 기록으로 잘 담기면 좋을 것 같아 수업과 독서를 연계해볼 순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업마다 흥미 있던 내용과 관련된 책을 따로 찾아보고, 추가로 최신 데이터나 논문 등을 조사해 탐구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발표·토론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됐죠.

예를 들어 2학년 <한국지리> ‘인구 문제와 인구 변화’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을 읽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조사해 PPT로 요약·발표했어요. 3학년 <사회·문화>에선 <인구 미래 공존>을 읽고 우리나라 인구 정책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심화했고요. 학년·과목이 달라져도 관심 분야 내용이 겹칠 때가 있는데, 독서 활동을 통해 제 흥미와 지적 호기심을 잘 드러낸 것 같아요. 후배들이 치를 입시는 독서 기록 자체는 반영되지 않지만, 세특이 중요해졌다고 들었어요. 특히 자유전공학부는 융합적인 사고,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중시하기에 교과 내용을 독서로 탐구하는 활동이 이전보다 더 경쟁력이 되어줄 것 같아요.



2023년 '전공 적합書'는 고교 교사로 구성된 자문 교사단과 함께합니다. 진로·진학, 독서, 교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교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 포인트부터 추천 독후 활동까지 안내할 예정입니다. _ 편집자

관심사가 폭넓은 만큼, 각종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컸어요.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파고들어요. 우리 사회는 각종 진통을 겪으며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력도 커졌지만 불신 불만 불안으로 가득 찬 '3불 사회'라 자살률이 급증하고 행복도는 낮다고 하죠. 정의 평등 연대 역량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지향해 사회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요. 자유전공학부엔 자신은 물론, 사회에 대한 고민도 큰 학생들이 많아요. 인문 계열 성향 졸업생은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행정 분야로도 많이 진출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책이라 후배들도 읽어보면 좋겠어요. 고려대 자유전공학부를 희망한다면, 이중전공인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에 대한 소양도 미리 쌓을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지은이 이재열
펴낸곳 21세기북스

선배의 강추 전공 적합書



팩트풀니스
지은이 한스 로슬링 외
옮긴이 이창신
펴낸곳 김영사

정보를 수용할 때,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에 휘둘리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인간의 불합리한 판단을 꼬집죠. 책을 읽고 정보를 접할 때 비판적인 사고가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이후 언론 보도는 물론 제가 필요해서 찾아낸 다양한 논문이나 자료들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한 번 더 검증하며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대학생이 됐지만,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전공 불문 필요한 역량이지만, 특히 자유전공학부는 수많은 정보를 조합해 내 전공을 찾아야 하는 특성상 비판적 사고가 더 중요한 만큼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